

「프로젝트 한강」 2단계(Phase II) 본격 착수

- ◆ 한국은행은 「프로젝트 한강」¹⁾ 2단계(Phase II)를 통해 디지털화폐 시스템 정식 도입 및 예금 토큰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
 - 신규 2개 포함 총 9개 은행이 참가하고, 사용처를 대폭 늘려나갈 예정
 - 개인간 송금 등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, 디지털바우처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 개발 추진
 - AI 에이전트 및 토큰화된 증권 등의 지급수단으로서 미래 디지털 경제 발전 지원

미래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방안 점검을 목표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행된 「프로젝트 한강」 1단계(Phase I)에서는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이 제조-발행-유통-환수-폐기 전과정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였다. 세계 최초로 대규모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용 지급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, 정부, 유관기관 및 참가은행들과 함께 관련 제도 및 기술적 준비²⁾를 진행하였다.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실거래 파일럿에는 총 8.1만 명(전자지갑 기준)이 참가하였고, 거래건수는 총 114,880건(사용처 대금결제 및 예금-예금 토큰 간 전환 거래 포함)이었다.³⁾

1단계에서의 경험 및 성과를 토대로 2단계에서는 디지털화폐 시스템의 정식 도입 및 예금 토큰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, 한국은행은 정부, 유관기관 및 참가은행과 함께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 2단계를 추진하려 한다.

- 1) 「프로젝트 한강」은 한국은행과 참가 은행들이 기관용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을 각각 발행·유통하여, 기존 대비 수수료가 낮은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한편, 스마트계약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지급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보도자료 「한국은행-금융위원회-금융감독원, BIS와 협력하여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」(2023.10.4일)
- 2) 금융위원회의 참가은행 대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, 한국은행 근거 규정 제정 등을 비롯하여,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시스템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.
- 3) 「1차 실거래 파일럿 결과보고서」(2025.10.30일)

1. 참가은행 및 사용처 확대

우선, 후속 실거래에서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곳에서 예금 토큰을 활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. 현재 1차 실거래 참가 7개 은행⁴⁾에 더하여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 등 2개 은행이 추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. 참가 은행들은 예금 토큰으로 결제시 수수료가 대폭 절감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, 민생과 관련성이 높고 결제수수료 부담이 큰 대형 사업체는 물론 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용처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.

2. 한결 편리해질 예금 토큰 서비스

그간의 사전 준비 기간 동안 개인간 송금, 생체인증, 예금 토큰 자동 입출금 등 편의성 제고 기능을 개발하였다. 새로운 기능이 적용될 경우, 예금 토큰을 이용하여 개인간 안전한 자금이체가 가능해지고 기존의 비밀번호 중복 입력 대신 지문 등의 인증으로 간편하게 예금 토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. 그리고 자동 입출금(예금→예금 토큰)되는 기능으로 인해 부족한 결제금액이 있어도 결제시마다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진다. 구체적인 사용처 및 신규 기능 적용 여부는 정부, 유관기관 및 은행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.

3. 디지털바우처 등 프로그래밍 기능 적용 확대

아울러 2단계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향상하여 1단계⁵⁾보다 다양한 디지털바우처 적용사례를 발굴하고자 한다. 정부의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상반기중 착수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은, 금년들어 프로그래밍 기능이 실제 적용되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. 이를 토대로 한국은행은 기관용 디지털 화폐 및 예금 토큰을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가운데 은행 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기능이 부가된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.

4. 토큰화된 증권 등 미래 디지털자산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검증

한편,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이 AI 에이전트와 토큰화

4)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농협, 부산

5) 1단계에서는 서울 청년문화패스, 부산 신라대 장학금, 대구 도서관 바우처 이상 3가지 디지털바우처를 발행하였다.

된 증권 등 디지털자산의 지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해나갈 예정이다. 지난해 12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인공지능(AI)이 상품 및 서비스를 검색하고 구매까지 하는 서비스(AI 에이전트)⁶⁾에 예금 토큰이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으며, 후속 연구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. 이 외에도, 토큰화된 채권 및 주식 등 디지털자산의 거래에 예금 토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.

5. 디지털화폐 인프라 상용화 방안 모색

금번 2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발판으로 삼아 **디지털화폐 인프라 상용화 방안**을 모색하고자 한다. 이를 위해 우선 향후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 및 시스템 운영·고도화 방안 등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**외부전문기관 컨설팅**을 진행할 계획이다.

앞으로 한국은행은 급변하는 디지털자산 및 지급서비스 관련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여 「프로젝트 한강」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을 시장에 안착시킴으로써, ① **저비용의 보편적 지급수단**과 ② **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혁신 금융서비스**를 제공하고 ③ **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발전**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 및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.

6)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의 [시연영상을](#) 참조하기 바람(링크 첨부)

프로젝트 한강 2단계 주요 변화(예정)

1. 참가은행 및 사용처 확대

구분	1단계(As-is)	2단계 도입 추진(To-be)
• 참가은행	-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농협, 부산(7개)	- 경남, 아이엠 추가(9개)
• 사용처	- 주요 유형별 사용처 1곳 * 편의점(세븐일레븐), 마트(농협 하나로마트), 커피(이디야), 서점(교보문고) <small>이상, 온라인</small> , 디지털굿즈(모드하우스), 온라인쇼핑(현대홈쇼핑) 배달앱(뽕겨요) <small>이상, 오프라인</small>	- 민생과 관련성이 높으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큰 대형 사업체 및 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용처 발굴 모색

2. 이용편의성 제고

구분	1단계(As-is)	2단계 도입 추진(To-be)
• 개인간 송금 (전자지갑 간 이전거래)	- 개인 지갑 간 이전 거래 불가 * 개인 지갑 → 사용처 사업자 지갑 이전 거래만 가능 - 사용처 사업자 지갑은 전환 출금만 가능	- 전자지갑 간 이전 거래 지원 * 단, 한도 제한 등이 부과될 수 있음
• 생체 인증	- 본인인증은 비밀번호만 가능 * 전자지갑 로그인, 결제 승인 등	- 생체 인증 도입 * banking 앱 내 생체인증 활용 등
• 예금 토근 자동 입출금	- 전자지갑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연계계좌와 전자지갑 간의 예금 토근 전환 입출금을 건별 요청	- 자동 입금 * (예시) 사전 설정된 금액 이상 잔고 유지, 보유잔액 이상 결제시 부족분을 자동 전환 입금 - 자동 출금 * (예시) 입금 거래로 인해 사전 설정된 금액 한도 초과시 초과 금액은 연계계좌로 자동 출금

3. 디지털바우처 등 프로그래밍 기능 확대, 디지털자산의 지급수단 기능 구축

구분	1단계(As-is)	2단계 도입 추진(To-be)
• 프로그래밍 기능	- 서울시, 부산시, 대구시 3개처	-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일환인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 지원 등
• AI 에이전트 등	- 탄소배출권, 디지털통화안정증권, 디지털청약 등 3건의 기술검증	- AI 에이전트의 지급수단 가능성 테스트(기술검증) - 토큰화된 채권 및 주식의 거래 수단 가능성 점검

프로젝트 한강 추진 현황

구분	주요 내용	현황
1단계(Phase I): 미래 디지털화폐 인프라 시범 구축 및 실증		
• 설계 방안 모색	- BIS와 협력하여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은행 예금 토큰이 발행·유통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공동보고서로 발표	완료 (’23.10월)
• 시스템 구축	-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시스템 구축	완료 (’25.3월)
	- 디지털 자산의 발행·유통을 중심으로 3건의 개념검증(PoC) 실험을 진행	완료 (’24.11월)
• 제도적 기반 마련	- 금융위의 7개 참가은행 대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	완료 (’24.10월)
	-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연구·개발 규정, 절차, 세칙 제정	완료 (’25.2월)
• 실거래 파일럿(Pilot) 실시	-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과 응용 서비스인 디지털 바우처 활용 실거래 진행(8.1만개 전자지갑 개설)	완료 (’25.4~6월)
	- 후속조치(기록 보관 및 파기, 시스템 종료 등)	완료 (’25.8월)
2단계(Phase II): 미래 디지털화폐 인프라 고도화		
• 시스템 확충	- 후속 실거래 등에서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생체인증, 개인간 송금 등 신규 기능 개발	완료 (’26.2월)
•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지원	-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의 국고금 집행 투명성·효율성 제고 지원	착수예정 (’26.상반기)
• 후속 실거래 실시	- ’26년 하반기중 9개은행과 실시: 사용자 확대, 이용편의성 제고, 혁신서비스 기획	착수예정 (’26.하반기)
	-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외부기관 종합컨설팅 진행	착수예정 (’26.3~10월)
• 미래 디지털경제 지급수단	- AI 에이전트 ¹⁾ 및 토큰화된 증권 등 디지털자산의 지급수단으로서 예금 토큰 활용 기술 개발 및 연구	진행중

1)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인공지능(AI)이 상품 및 서비스를 검색하고 구매까지 하는 서비스로,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(멀티콘텐츠)의 시연 영상을 참조(<표>의 링크 활용 가능)



- 비전(Vision) -	
3단계(Phase III): 미래 디지털화폐 인프라 상용화	
① 저비용 보편적 지급수단으로 정착	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, 지급결제 시장지배력 및 데이터 집중 완화
② 프로그래밍 가능 금융서비스 확대	자금관리 효율성·편의성 제고, 에이전틱(Agentic) AI 등 혁신산업 성장 지원
③ 디지털자산 생태계 발전 지원	토큰화된 채권·주식 등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한 인프라 지원
“우리나라 지급결제 및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”	